



소재·부품·장비 국가연구협의체

목 차

Contents

I 국가연구협의체(N-TEAM) 개요 및 구성

II 국가연구협의체 (N-TEAM) 지정 절차 및 지원계획



Chapter

I

국가연구협의회 (N-TEAM) 개요 및 구성



국가연구협의체(N-TEAM) 개요 및 구성

개요

▶ 국가연구협의체의 개념

- ☑ 체계적인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 지원 및 기술 애로해결 등을 위해 우수 산학연 집단을 국가연구협의체로 지정
- ☑ 국가연구협의체 구성원의 긍지를 높이고, 소재·부품·장비 기업 및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산학연 역량을 결집

▶ 국가연구협의체의 역할

전주기 기술자문

기업 특성(수요/공급)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문 서비스 및 경과에 따른 추가자문 등 후속적으로 산업현장 지원



네트워크 구축

산학연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술 신뢰도 제고 및 기술이전 등을 통해 기술확산 도모



지역산업 지원

국가연구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특구(강소특구, 산업융합단지 등)과 연계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



국가연구협의체(N-TEAM) 개요 및 구성

개요

▶ 관련 언론 보도

한국일보

2019년 10월 20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소부장' 강국을 향해

2019년 10월 20일

기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소부장' 강국을 향해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우리라는 세계가 새로 생겼다. 특히, 반도체 부문에는 현재 시장을 70% 가까이 장악하고 있는, 세계 최강의 존재이기도, 세계적인 기업이 없고 있다. 이러한 제조산업은 기본적으로 비범한 사람이 다양한 소자와 부품을 가공하고 조립하는 과정을 거쳐진다. 따라서 소자 부품 중반, 즉 소부장 제조 산업의 중요도도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필수요소인 소부장 물적없이 의존해 왔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많은 제품들을 수출하지 못했기에 우리의 성장도 많이 위축되었었다. 특히,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육성하기에는 후진국이 놓여있었다. 그러나 국외에 부품을 공급하는 원가가 적게 때문에 내수시장에서 원가가 적게 되면 자연스럽게 경쟁력이 후진하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특별한 인센티브를 받지

않은 일본 기업은 개발 비용을 보지 못한 투자를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 현지 기업과 협의를 통해 개발 및 생산 라인 확보에 힘쓰고, 철저한 품질 관리로 해외 고객에게 신뢰를 얻어내며 수출 규제를 면하게 되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우리나라에 위기이고, 더 나아가는 곧 보이지 않는, 한편으로는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로, 연구·개발 지원 및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이 필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정부는, 이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한다.

우리 국가연구 개발 연합과 인프라를 결합시켜 나갈 것이다. 국민 수출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 지원만 시행하지 말고, 연구·개발 지원과 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연구소에 대한 지원과 함께 그 기술의 수요 기업에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겠다. 수입 대체화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기술도 부족한 경우에는 보다 긴 호흡의 연구를 통해 해결된 기술을 지원하는


서울경제

2020년 1월 16일

소·부·장 경쟁력, 디테일에 달렸다

2020년 1월 16일

로터리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지난해 여름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 조치로 위기가 촉발된 지 반 년이 지났다. 일본 외에 대안이 없어 보이던 3대 품목에 대해 국산화, 수입대체선 확보 등으로 공급안정화를 이루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위기는 우리 소재·부품산업에 전화위복이 됐고 위기 때 활발 움직이는 우리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

이번 사태 이후 주력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대한 국산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글로벌 분업체계를 등한시한 채 모두 국산화해야 한다는 발상은 실현 가능하지 않다. 주력산업의 생태계와 밸류체인을 주의 깊게 살펴 위험요인이 높은 핵심전략품목을 선별해 공급안정화를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술 대체와 가능성여 보이는 핵심전략품목은 중장기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을 강화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중장기 협의체의 필요성

국가연구협의체(N-TEAM) 개요 및 구성


개요

▶ 관련 언론 보도(참고)

4차 산업혁명 전문 미디어 포아이알뉴스 2019년 8월 7일

서울대 공대, 100대 핵심 품목 '기술 자립'지원 나선다

'SNU공학컨설팅센터'에 특별 전담팀 구성



서울대 공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백재로 공급에 타격을 입은 소재, 부품, 장비 100대 품목의 공급 안정화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특별전담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은 공과대학 산학기술협력 조직인 SNU공학컨설팅센터에 소재, 부품, 장비 기술 자문 특별 전담팀(TF)을 구성하기로 했다. 7일 밝혔다. 산일별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 전자, 기계공학, 화학소재의 분야를 서울대 공대 소재부의 반도체공통연구소, 차세대 자동차 연구센터, 자동차시스템공통연구소, 신소재공통연구소, 정밀기계설계공통연구소,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소들이 각각 기술자문을 지원한다.

중앙일보 뉴시스 NEWSIS 2019년 8월 5일

"중소기업 원천기술 개발 돕자"...KAIST교수 100여명 나서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기대

150개 핵심소재 부품 장비 중견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자문 신청 열 중앙 "기술패권 시대엔 과학기술인들이 나라 지켜야" "기술독립국으로서 혁신성장 할 수 있도록 기반 닦는데 역할"

KAIST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KAIST Advisors on Materials and Parts, KAMP

자문단장 최성훈 교수

| | | | | |
|--------------------------------------------------|----------------------------------------------------|----------------------------------------------------|-----------------------------------------------------|----------------------------------------------------|
| 첨단소재분과 팀장: 이혁호 교수 자문위원: 연도초기술연구실 교수 | 화학·생물분과 팀장: 이영민 교수 자문위원: 최석영 기술연구실 교수 | 화공·장비분과 팀장: 이재우 교수 자문위원: 최성익 기술연구실 교수 | 전자·컴퓨터분과 팀장: 문태균 교수 자문위원: 천재현 기술연구실 교수 | 기계·항공분과 팀장: 이두용 교수 자문위원: 김재환 기술연구실 교수 |
|--------------------------------------------------|----------------------------------------------------|----------------------------------------------------|-----------------------------------------------------|----------------------------------------------------|

150개 소재·부품·장비 관리품목 연관 중·중견기업 기술 자문 및 지원

【서울=뉴시스】 오종현 기자 =카이스트(KAIST)가 국내 기업들의 핵심소재 부품 장비 원천기술 개발을 돕기 위해 나섰다.

이는 일본이 지난 2일 우리나라를 수출상사 우대대상 국가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2차 제재보복을 단행한 직후 내린 결정이다.

KAIST는 신청 열 증 등 주요 보직교수들이 참석한 비상 간담회에서 반도체-에너지 자동차 등 주요산업 분야의 핵심소재 부품 장비업체들의 원천기술 개발지원을 위해 'KAIST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2019년 12월 12일

[한일 경제전쟁] 연세대도 특별기술지원단 꾸려 산업개 지원

"기술 자립에 도움"... 대학가 국내기업 지원 잇따라

특별 기술지원 연구단(단체 제외)

【서울=연합뉴스】최명천 기자 =연세대가 교수 185명이 참여하는 특별 기술지원단을 구성해 국내 기업들의 기술 자립과 연구를 지원한다.

연세대는 공과대학 산하 공학연구원 소속 7개 연구소와 3개 연구단(센터), 이과대학 자연과학연구원 총의 교수 185명이 참여하는 특별 기술지원 연구단을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 조직 및 운영

국가연구협의회(N-TEAM) 개요 및 구성

구성

▶ 국가연구협의회 구성

국가연구협의회 활동의 다양성 및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3가지 구성 유형* 제시

* 국가연구협의회 구성 유형: 기관 중심 구성, 연구실 중심 구성, 품목 중심 구성

➔ 지정을 희망하는 협의회는 3가지 구성 유형 중 하나의 유형을 택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01 기관 중심 구성

소재·부품·장비 기술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 출연연 등 주도적 기관 내 전문집단 중심으로 구성 (타기관 연계 참여 가능)

구성예시

- 1 00대학교 내 활동중인 기술자문단 또는 연구진으로 구성
- 2 00출연연 내 기업지원 조직을 중심으로 인근지역의 시험 인증기관 등이 연계하여 구성



국가연구협의체(N-TEAM) 개요 및 구성

구성

02 연구실 중심 구성

연구실 단위의 조직이 중심이 되어, 협업관계에 있는 산학연 집단과 연계하여 구성

구성예시

- 1 00출연연의 국가연구실 및 협력 Family 기업, 대학 연구실이 연계하여 구성
- 2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단이 기술지원 업무수행도 하도록 그 역할을 확장하여 구성

03 품목 중심 구성

협회, 연구조합 등 소재·부품·장비분야 산업의 진흥 및 협력도모를 위해 구성된 조직이 핵심품목*을 중심으로 구성

* 핵심품목이란 일본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거나, 기술적 중요성이 높아 산업·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품목을 말한다.

구성예시

- 1 00산업협회 또는 00연구조합을 중심으로 특정 핵심품목 관련 산학연 등이 연계하여 구성



국가연구협의회(N-TEAM) 지정절차 및 지원계획



국가연구협의체(N-TEAM) 지정 절차 및 지원계획

지정 절차



지정 방식 → 공모 및 평가를 통해 국가연구협의체 지정



신청공고

국가연구협의체 지정 관련
신청방법·절차, 신청기간 등에 대해
공고 및 지정 신청 접수



평가

서류평가(50%)와 발표평가(50%)를
합산해서 기준점수(80점) 이상인
협의체를 지정 대상 국가연구
협의체로 결정: 절대평가

* 주요평가항목

: 산업현장 지원실적, 기관의 지원, 조직·
운영의 체계성, 산업·기술적 파급효과 등



최종지정

소재·부품·장비 기술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정



☑ 상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의 '국가연구협의체 지정 신청 공고('20.1.10.~2.28.)'를 통해 확인 가능

국가연구협의체(N-TEAM) 지정 절차 및 지원계획

지원 계획

▶ 국가연구협의체 지원 계획

※ 최종 지원 내용은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 2021년부터는 국가연구협의체의 활동 경비를 중심으로 지원 추진
- ☑ 지원 방식과 지원 항목은 국가연구협의체의 유형과 기관별 사정을 고려

지원 가능 항목 (안)

- ✓ 출장비, 전문가 회의비
- ✓ 자료 발간비, 인쇄비 등
- ✓ 자문비



지원 불가능 항목 (안)

인건비

중복수령





감사합니다